

에너지관리공단 소식

에너지관리공단
2003 Best Practice 선정

에너지절약기기 순회전시회, 소형 태양광 및 LED 기획특별전시회

에너지관리공단은 2003년도에 각 부서에서 추진한 과제중에서 본사부문 에너지절약기기 순회전시회(효율기술처)와 지사부문 소형 태양광 및 LED 기획특별전시회(광주전남지사)를 Best Practice로 각각 선정하여 포상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Best Practice 선정은 해당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여타 사업에 비교모형을 제시토록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경쟁력과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2개 과제는 2003년도에 추진한 사업중 1차적으로 선별된 22건 가운데 효율성, 유연성, 고객만족, 수익성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Best Practice 사업 가운데 1999년부터 시작하여 5회째를 맞은 에너지절약기기 순회전시회는 대기전력 등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한 주제를 선정하고, 전시품목의 수도 2002년도에 비해 10개 품목이 늘어난 52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전시내용을 다양화하고 집중화하여 서울, 대구 등 10개 지역에서 269,802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린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광주전남지사는 LED 21종, 소형 태양광이용기기 32종에 대해 관련업체의

협조를 얻어 특별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내 특화된 에너지기자재 시장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대체에너지보급사업에
109억9천만원 지원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집중지원, 올해안 200가구 보급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鄭長燮)은 대체에너지설비의 시장조성 및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2004년도 대체에너지보급사업 지원안내를 공고하고 올해의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액은 정부의 대체에너지보급 강화방침에 따라 지난해 21억7천만원보다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109억9천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보급사업의 추진방식도 시범보급 중심에서 상용화설비의 대량보급을 위한 지원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자격도 크게 넓혔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상용화보급 사업은 크게 태양광주택보급사업과 일반 보급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2012년 10만호 보급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총 63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 지역내에서 10호이상의 주택이 집단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단독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설비용량을 1~

5kW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설치부담을 완화하는 등 태양광주택 보급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올해안에 200가구의 태양광주택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보급사업에 35억 9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상용화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초기 투자비의 부담으로 시장확대가 어려운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분야 등의 설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총 11억원이 배정된 시범사업의 경우, 국내 대체에너지기술의 발전 및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신기술적용사업 대상으로 집광조명설비와 진공관형 태양열설비, 그리고 복합기술사업 대상으로는 동일건물에 열과 전기 생산설비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적용시스템을 각각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대체에너지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서식 등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또는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홈페이지(racer.kemco.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최대규모 매립가스(LFG)
발전사업 착공

3년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450억 지원

에너지관리공단은 3월 12일 환경부장관과 인천시장,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백석동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에코에너지(주) 매립가스 발전소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매립지가스 발전소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이 발전소는 총 건설비용 950억원 가운데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연간 150억원씩 3년간 총 450억원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연리 3.5%(1/4분기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받아 건설되며, BTO방식(Build Transfer Operate, 건설양도운영)으로 건설되어 사업시행자인 에코에너지(주)가 11년 동안 운영한 후 정부에게 운영을 넘기게 된다.

오는 2006년 3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인 이 발전소는 완공 후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연료로 약 10만 가구의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연간 40만 MWh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며, 매립지 주변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발전소에 생산되는 전기는 대체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발전가격 고시 및 차액지원제도'에 따라 기준단가를 전력시장 판매단가(2002년 기준 kWh당 47.23원)보다 높은 kWh당 61.08원으로 책정하여 그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받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현재 매립지 가스 발전시설이 가동중인 울산, 부산, 대전 등 8곳 이외에 추가로 3곳에 이러한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며, 최근의 고유가 사태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원의 활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고 있는 배관! 손쉽게 해결한다.

손으로 반죽하여 붙여만 준다. 배관보수 접착제

▷ 강관용, 동관용, 고온용, 다목적용, 알류미늄용, 플라스틱용, 수중용, 콘크리트용, 내약품

이액형 보수제 ▷ 주격으로 원하는 양만큼 주격의 경화제를 반죽하여 사용하는 보수제 STEEL/ ALUMINUM/ STAINLESS 등

수처리 케미칼 ▷ 보일러 및 냉각라인의 청관제, 미생물제어제, 세균제, 편모알세포제, 바닥 및 설비세척제 등

간편하게 감사서 보수한다. 배관보수 테이프 - PRES

사용방법

1. 벨브를 잠그고 오염물질을 제거 후 샌드페이퍼나 브러쉬 등으로 거칠기 작업을 한다.
2. 압력을 제어할수 있으면 스틱형 보수제를 부착하여 누설부위를 막는다
3. 압력이 제거가 안되면 생고무 롤을 누수지점에 감아준다.
4. 다 감은 후 같은 방향으로 부드럽게 맞사지 작업을 해준다

* 맞사지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장갑을 벗고 손에 물을 묻혀 작업하면 작업이 더욱 용이하다.